

우리교회 선교이야기 김주원 목사(동산교회)

선교는 명령이고, 기회이고, 축복이다(요한복음 1:29)

작은 교회가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인력과 시간도 부족하다. 그래서 선교를 꿈꾸면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다고 선교를 포기하거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주님께서는 선교를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주셨다. 우리 동산교회도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기도로 준비하며,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

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선교의 문을 계속 두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셨다. 동산교회가 경험한 작은 선교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선교의 도전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1. 캄보디아 선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황반석 선교사의 사역을 방문했다. 현지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클락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필요

한 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부부를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하며 그들의 사역과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보다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서, 선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선교와 같은 현실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2. 아프리카 가나 선교



유미현 선교사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의 세 마을(쿠분사마을, 나테만마을, 안비사마을)에 우물을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역에 동참했다. 유미현 선교사가 우물을 파는 과정과 마을 주민들의 축제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내 주었고, 이를 편집하여 주말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 성도들은 영상을 보며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마을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던 날,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축제와 같았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 축복으로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3. 필리핀 호렘동산교회 입당예배

클락에서 사역하시는 이능호 선교사를 만나 세 차례 광가시안을 방문한 끝에, 동산교회의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처음 그곳 성도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들은 예배당이 없어 다른 사람의



집 주차장 처마 아래 작은 현수막 하나를 걸고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예배처소가 없어 부러 여섯 번이나 예배 장소를 옮기며 떠돌아다녔던 예배를 드려 왔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현실을 직접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성도들과 함께 이 상황을 나누고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250명의 부지를 마련하고 약 80평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6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현지 성도들과 함께 눈물과 감동이 있는 전도집회와 입당예배를 드렸으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광가시안에 호렘동산교회 기념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한국에서의 목회도 버겁고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선교를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 이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선교지편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승렬, 이현정 선교사

남아공의 추운 겨울, 말씀으로 자라는 공동체

GTC신학교 소식: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케이프타운의 6월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겨울은 우기에 오후 5시 45분에 해가 지기 시작해 수업이 시작하는 저녁 6시가 되면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타운십의 일하는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건설업이나 노점 및 일용직 노동을 하기 때문

에 바가 오는 날이 많아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겨울이면 언제나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깊은 밤이 되어 학교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인 학생들에게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자녀들을 두고 학교를 오는 학생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판자집 위주의 타운십 주거 환경은 단열이 되지 않아 습하고 춥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질환감기, 폐렴 등이 취약계층인 이들에게 급격히 확산되기 쉽습니다. 이미 저와 학생들이 이른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빼지고 쉬는 것도 어렵고 약을 구입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겨울이면 일자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치열하게 말씀을 배우는 이들의 안전, 건강 그리고 이들의 매일의 삶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GVC 그린빌리지교회 소식:성경읽기를 교회의 주사역으로



칼리체(도시빈민 지역)의 그린빌리지교회는 이제 제 6기 섬기던 기간보다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노블리카야 목사님은 여전히 이 빈민가에서 신실함으로

매일 아침기도와 큐티운동으로 교회와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길리 장모님은 본인의 어려운 형편에도 여전히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모아 어린이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 아이들이 더 춥고 더 배고플거라 생각하니 거리에 흩어진 아이들을 모아 함께 예배하고 돌보는 길리 장모님의 사역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남아공은 매년 6월 16일, 젊은이의 날을 통해 1976년 백인들로부터의 탄압이 있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맞서 저항하며 일어섰던 학생과 청년들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는 한국의 1980년 광주에서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칼리체의 그린빌리지교회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일어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산디소가 지역의 학생들을 모아서 6월 16일에 큐티캠프를 하겠다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산디소를 중심으로 교회 청년들이 스스로 이를 기획하고 집에서 큐티모임을 가졌습니다. 빈민가의 젊은이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했던 산디소와 아이들이 이제 20대의 청년이 되어, 타운십에 새로운 아이들을 말씀읽기로 돌보고 있는 것이 매우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들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큰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해성동교회, 굿네이버스 강원지부 ‘좋은이웃교회’ 현판 전달식 진행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 위해 정기후원 캠페인 동참

강원지방회 동해성동교회(박현미 전도사·사진)가 지난 24일(수) 굿네이버스 강원지부(지부장 이서환) ‘좋은이웃교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좋은이웃교회’는 굿네이버스가 지구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정기후원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현미 전도사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통해 참여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이번 현판 전달식은 굿네이버스의 나눔 캠페인인 ‘좋은이웃교회’에 동해성동교회가 동참하며, 국내외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전하기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이웃교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특별히 다양한 이유로 시설에서 보호받던 아이들이 보호종료 나이에 도달하여 자립을 준비할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낙담하지 않고 기쁨으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이서환 굿네이버스 강원지부장은 “자

립을 준비하며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박현미 전도사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보내주신 사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좋은이웃교회’는 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나눔캠페인으로 교회를 비롯해 소상공인, 학원, 병원 등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회 B.C.M 및 리유즈(Reuse) 사역 동참자 모집

Bright Church Ministry(이하 B.C.M 사역) 만들기 사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성 공동체의 교회들을 세우고 돕는 B.C.M 사역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B.C.M 사역의 개요: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 보수 및 내, 외부 수리, 벽화 사역 등
- ◆ 모집대상: 달란트가 있는 목회자 및 장로, 성도 교회나 기관
 - 특별히 코로나 이후 여름철 아웃리치 등도 교회 단위로 동참하여 연계하시면 더욱 고르고 원활하게 필요한 교회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음.
 - 일정 기간 동역자 및 동역교회 모집 후 사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
 -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단 내 교회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힘이 되 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현재 동참 교회: 강서, 두란노, 드림, 마조, 미당, 뽕엘, 부평성산, 사랑의 동산 새만식, 새생명, 신소망, 신월동, 세계중앙, 한마음교회 (가나다 순)
- ◆ BCM 사역 후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533301-01-115619 예성총회
- ◆ 동역문의: BCM 사역 위원장 손항모 목사 010-8409-1210
서영원 목사 010-8440-6291

예성 총회 리유즈(Reuse) 사역 안내

리유즈(Reuse)사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회에 여분으로 보관되어 있는 음향, 영상기기 및 악기 등 교회 예배에 필요한 기자재를 기증받아 청소 및 정비 작업 후 필요한 교회에 보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동참 및 후원 방법: 교회에 보관 되어 있는 여분의 음향, 영상 장비 및 악기를 필요한 형제교회들을 위하여 리유즈사역 팀에 기증.
- 리유즈사역 팀에서 접수 후 수리 및 점검 후 필요한 교회의 신청을 받아 보급함.
- 우리 교회에는 여분으로 놓여 있지만 형제 교회들에게는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이미 일정량의 기자재가 기증되어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기술진과 일부 후원자들이 구성되어 정비 및 수리 진행 중임.
-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동참하고 계신 교회와 기관: 고은, 두란노, 미당, 부평성산, 사랑나무, 새날, 새만식, 새생명, 서삼, 성은, 우리들의, 주님의, 청지기, 포근한 교회(가나다 순), 성경대학교
- 리유즈 사역 후원 계좌: 국민은행 533301-01-115619 예성총회
- 문의:총회 리유즈사역위원회 심상훈 목사 010-2799-3765